



금빛 선율로 힘찬 3월... 국제관악제 봄 시즌

19-22일 문예회관 대극장 등 해외 7개국 등 300여 명 참여 스페니쉬브라스 개막 공연에 2025 관악콩쿠르 입상자들은 라이징스타 콘서트 무대 꾸며 작곡콩쿠르 결선엔 6명 진출



왼쪽은 세계적 명성의 금관5중주단 스페니쉬브라스. 오른쪽은 2025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금관5중주 1위 수상자로 라이징스타 콘서트에 출연하는 그란츠브라스퀸텟.

세계에서 손꼽히는 금관5중주단의 금빛 선율로 2026년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의 문이 열린다.

제주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1회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이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의 음악 여정을 이어간다.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을 주무대로 삼았고 함덕고등학교 백파뮤지컬과 동려평생학교 강당에서도 특별 공연을 벌이며 관악 선율로 봄의 활력을 빛낸다.

봄 시즌 출연자는 8개국 300여 명에 이른다. 해외에서는 스페인, 독일, 헝가리, 일본, 캐나다, 미국, 대만 등 7개국에서 12명의 연주자가 제주를 찾는다.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라이징스타 콘서트, 함덕고등학교 마스터클래스, '내일을 여는 하모니·희망 콘서트' 특별 공

연, '혼디모영 지꺼지계' 앙상블 공연, 제5회 제주국제관악제작곡콩쿠르까지 관악의 현재와 미래가 펼쳐진다.

첫날 개막 공연(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출연진은 더원즈와 스페니쉬브라스(Spanish Brass)로 짜였다. 개막 공연 직전엔 도내 청소년들로 꾸러진 공깃돌클라리넷앙상블과 원주니어브라스의 마중물콘서트(오후 7시10분)가 마련된다.

더원즈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관악 주자들로 구성됐다. 박혜진 편곡의 '제주에서' 등을 연주한다. 20일 오후 2시 함덕고 공연도 갖는다.

스페니쉬브라스는 1989년 창당한 팀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금관5중주단 중 하나다. 2020년에는 스페인 음악가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인 국가음악상을 받았다. 제주국제관악제와도 꾸준히 인연을 맺어왔다. 국제관악제조직위는 이번 초청이 스페인문화진흥원 기금 지원 사업 선정으로 성사된 점을 알리며 "관악을 통한 제주와 스페인 간 공식 문화 예술 교류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스페니쉬브라스는 마스터클래스(20일 오후 3시 함덕고), 내일을 여는 희망 콘서트(20일 오후 2시 동려평생학교)에도 참여한다.

라이징스타 콘서트(20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는 2025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입상자들이 주인공인 무대다. 그란츠브라스퀸텟(Glanz Brass Quintet), 호른 강민성, 트럼펫 백도영, 스페인 출신 테너트 롬본 로베르토 데 라 기아(Roberto de la Guia) 등 차세대

연주자들과 함께 골든브라스앙상블이 특별 출연 예정이다.

제주국제관악제작곡콩쿠르 결선(21일 오후 3시 문예회관)에는 정제호('어머의 바탕'), 조인우('제주 뱃노래'), 조주연('잡녀'), 강택구('숨비소리'), 김신('환상서곡 제주'), 민동혁('교향적 환상곡: 용천검') 작곡가 등 6명이 진출했다. 지난달 접수된 제주민요 주제 관악 창작곡 23편 중에서 가려낸 작품들이다. 이 콩쿠르는 지난해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 총회에서 신규 분야로 공식 승인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공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개막 공연 관람료는 유료로 국제관악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영화觀 파반느

사랑과 용기

사랑을 선택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더 많은 용기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분명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있을 용기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왜일까, 무엇이 두려워서일까. 사랑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랑에게는 용기가, 용기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를 잘 안다고 말하는 용기와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사랑으로 가득한 영화 '파반느'를 봤다.

외로운 세 사람이 만난다. 백화점의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요한(변요한), 경록(문상민), 그리고 주로 지하 창고에 머무는 미정(고아성)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세상과는 괴리가 있다고 느끼는 각자들이다. 그들이 가까워진다. 누군가가 다가서기 때문이고 그때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가능해지는 일들이다. 미정은 외톨이를 자처한다. 낮빛이 어둠과 무리 속에 섞여 들지 않으려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미정에게 경록이 용기를 낸다. 호기심은 관심이 되고 관심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 호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알게 된다. 미정이 기다려지는 일이 됐을 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용기 위로 사랑이 자리 잡는다. '파반느'는 사랑 이야기다.

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한 영화 '파반느'에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사가 있다. "모든 사랑은 오해다, 영원할 것이라는 오해..."로 이어지는 소설 속 문장을 따른 대사다. 서로를 좋은 쪽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랑을 이뤘다는 말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오해의 연속이 사랑의 과정 안에서 발생할 때 몰랐던 것을 다시 알



영화 '파반느'

야하기 위한 용기가 새롭게 필요 한데, 우리는 종종 한 번 꺼내든 용기가 더 이상 유효할 리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용기 위에 자리 잡았던 사랑 위로 오해가 무겁게 내려앉는 모양을 이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파반느'의 세 사람도 결국 오해로 인해 멀어지게 된다.

'파반느'는 마주침과 떨림, 부딪힘과 안김, 멀어짐과 기다림, 환희와 고통을 차근차근 바라보는 영화다.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서사임을 알고 있는 영화는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는 형식으로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간다. 인물과 배경 그리고 사건이 서사의 중심이라면 인물 쪽에 치우친 채로.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세 사람이 또렷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어둠 속에 빛처럼 다가왔던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겼던 마음이 또 다른 형상으로 남는다. 사랑을 기억하는 일 또한 용기를 내는 일이라 믿는다.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오해'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뒤에서, 다른 한 사람의 뜨겁고 진심했던 것들이 영원히 용기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기를 바란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문화가 쏙지

현대미술관 '제주 식물 탐색'

제주현대미술관이 지난 6일부터 생태미술 교육 프로그램 '제주 식물 탐색'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사라질 위기 등에 놓인 제주 고유의 식물을 알아보고 활동지를 통해 나만의 식물도감을 완성하는 체험 과정이다. 생태미술 교육관에 비치된 자료를 이용해 먼저 자율 학습한 뒤 활동지에 관찰 내용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장마감 오후 5시 30분)까지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제주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참고.

'필사는 나의 힘' 문학관 특강

제주문학관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화가이자 수필가인 손광성 작가를 초청해 '필사는 나의 힘'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연다.

이날 손광성 작가는 필사로 이어지는 독서노트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며 읽기의 본질과 독서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함께 되짚어 예정이다. 강연은 독서와 필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시 낭송과 재즈 기타 연주로 이어진다. 이후 질의응답과 작가 저서 사인회 순으로 진행된다.

도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사전 신청은 10일부터 제주문학관 홈페이지.

제미인 정기전 '층위의 잔상'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밴디닷에서 오는 10일부터 4월 5일까지(월요일은 휴관) 제3회 제미인 정기전 '층위의 잔상'이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는 강경숙의 '정'(情), 김민진의 '바다소녀 파치: 풍랑 속으로', 안성환의 '기억의 팻말 세트 1', 양일용의 '601 WOUNDED HEALER'(상처 입은 치유자 601), 주연의 '시간의 미립자', 현혜순의 '바다가 기억하는 얼굴' 등을 선보인다.

제미인은 2023년 7월 창립된 단체다. 회원들은 개인전은 물론 국내외 교류전, 초청전, 공모전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AI 시대, 삶의 방향을 묻다

제주도 한라도서관은 6회에 걸쳐 특별 기획 프로그램 '인공지능 시대를 질문하다'를 운영한다.

일정은 ▷3월 14일=기술 폭식 사회, 좋은 삶을 묻다 ▷3월 28일=생태적 인공지능을 위해 ▷4월 11일=디지털 주권 사회와 주권 불복종 ▷4월 25일=마음이 데이터가 되었을 때 ▷5월 9일=사람의 일, 인공지능의 일 ▷5월 23일=인공지능과 민주주의, 새로운 시민성의 탄생으로 짜였다. 회차별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일정 중 3회는 강연자와 '작은 것이 아름답다' 편집위원 대담으로 꾸민다. 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주말 감성 선유도 여행

선유도&전주한옥마을&채석강&옥정호

NO팁, NO음선

1일차(토)	제주공항 출발(08시 20분) - 광주공항 도착 - 곡성 기차마을 - 중식(한정식) -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 - 솔로우 시티 전주 한옥마을 - 석식(불낙전골) - 전주 시그니처 호텔	
2일차(일)	조식(호텔조식) - 선유도 유람선 - 중식(꽃게탕) - 채석강 - 광주공항 출발(18시 15분)	
출발일 (선착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3월 14일, 21일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2인 1실 기준 359,000원 3인 1실 기준 355,000원 4인 1실 기준 350,000원	왕복 항공료, 숙박료, 입장료, 차량료 조식1회, 중식2회, 석식1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원주 소금산 케이블카

고수동굴&도담삼봉&초평호 출렁다리

NO팁, NO음선

1일차(토)	제주공항 출발(09시 40분) - 청주공항 도착 - 중식(마늘정식) - 만천하 스카이워크 - 단양 고수동굴 관람 - 도담 삼봉 - 수양개 빛터널 - 석식(떡갈비정식) - 호텔	
2일차(일)	조식(호텔조식) - 원주 소금산 케이블카 - 중식(더덕구이정식) - 진천 초평호 미르 309 - 청주공항 출발(19:15)	
출발일 (선착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3월 21, 28일 - 이후 요금인상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2인 1실 기준 359,000원 3인 1실 기준 349,000원 4인 1실 기준 339,000원	왕복 항공료, 숙박료, 입장료, 차량료 조식1회, 중식2회, 석식1회, 여행자보험료